

동아시아 佛者들의 『明心寶鑑』 수용 양상

성 해 준*

차 례

- I. 머리말
- II. 중국 불자와 『명심보감』
- III. 일본 불자와 『명심보감』
- IV. 서산대사와 『명심보감』
- V.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은 동아시아 佛者들의 저술에 『명심보감』이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고찰한 것이다. 『명심보감』과 불교와의 관계는 청주본 『명심보감』의 서문에 이미 언급되어 있다.

『명심보감』은 동아시아와 서양으로 전파되었는데, 그 속에 담긴 불교적 내용은 나라에 따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원본의 서문을 비롯하여 본문의 내용 일부가 삭제되거나 혹은 추가되기도 하였다. 특히 한국·일본·중국·대만 불자들의 저술에 『명심보감』 내용이 많이 수용되었지만, 그 수용 양상에는 역시 차이가 있다. 『명심보감』이 동아시아 각국에 널리 전파되어 다양한 계층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을 생각할 때, 동아시아 『명심보감』과 불교와의 관계는 학술적으로도 중요한 사항이다.

연구 결과, 중국과 일본의 불자들에게는 『명심보감』이 사회체제 이데올로기의 수단 혹은 불자들의 교양함양의 일환으로 출판되었지만, 한국에서는 정치적 이념과 관계없이 불자들의 정신적 수양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왔음이 확인되었다.

* 동명대학교 교수

주제어

명심보감, 동아시아, 불교, 서산대사, 도요에이쵸, 라조

I. 머리말

본 논문은 동아시아 佛者들의 저술에 『명심보감』이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고찰한 것이다. 『명심보감』과 불교와의 관계는 청주본 『명심보감』¹⁾의 서문에 이미 언급되어 있다.

『명심보감』은 동아시아와 서양으로 전파되었는데, 그 속에 담긴 불교적 내용은 나라에 따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원본의 서문을 비롯하여 본문의 내용 일부가 삭제되거나 혹은 추가되기도 하였다. 특히 한국·일본·중국·대만 불자들의 저술에 『명심보감』 내용이 많이 수용되었지만, 그 수용 양상에는 역시 차이가 있다. 『명심보감』이 동아시아 각국에 널리 전파되어 다양한 계층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을 생각할 때, 동아시아 『명심보감』과 불교와의 관계는 학술적으로도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는 없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동아시아, 한국·중국·대만·일본 불자들의 저술에 수용된 『명심보감』의 내용을 추출하고, 그 의미를 고찰하는 동시에 동아시아 불자들의 『명심보감』 수용 양상의 同異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고찰할 불자와 관련 서적은, 먼저 『명심보감』의 종주국인 중국 명나라 말기의 승려 羅祖가 편찬한 寶卷類이고, 대만은 曉雲導師의 서적 중에 언급된 『명심보감』 내용을 고찰 할 것이며, 또 일반 불교신자를 대상으로 1979년 6월 대만 瑞成書局에서 재판된 『명심보감』(부록 三聖經)을 고찰

1) 청주본 『명심보감』은 1454년 조선의 청주에서 간행된 『신간교정대자명심보감(新刊校正大字明心寶鑑)』으로, 범입본(范立本)이 1393년에 쓴 서문에 불교 관련 내용이 있다.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무로마치(室町)시대의 승려 도요 에이초(東陽英朝)가 편찬한 『젠린쿠슈(禪林句集)』·오산승려 출신의 하비안이 편찬한 『아마쿠사한 긴쿠슈(天草版金句集)』·에도(江戸)시대 전기의 승려 아사이 료이(淺井了意)가 편찬한 『간닌키(堪忍記)』·『우키요 모노가타리(浮世物語)』에 내재된 『명심보감』 관련 내용을 살필 것이며, 한국은 조선시대의 승려인西山大師(休靜)가 편찬한 『三家龜鑑』에서 『명심보감』과의 관련 내용을 고찰할 것이다.

II. 중국 불자와 『명심보감』

① 중국에 불교가 전래된 것은 前漢 哀帝 元壽 1년(B.C. 2)이라는 설이 있으나, 공식적으로는 1세기인 후한시대이다. 당시 중국은 실크로드를 통해서역과 활발한 교역을 하였다. 이 때 불교 승려들이 상인들을 따라 중앙아시아의 여러 지역(코탄·소그디아·파르티아·쿠차 등)으로부터 중국에 들어온 것으로 추측된다. 불교를 처음 접한 중국인들은 불상을 보면서 부처를 신으로 여겼으며, 현세적 구복의 대상으로 삼았다. 전래 초기에는 도교와 함께 신봉되었는데, 사상적으로도 불교의 空사상을 老莊의 無에 대비해 해석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노장사상과의 결합은 후에까지도 중국 불교를 형성하는 강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불교가 전개되어 온 과정을 시대적으로 구분하면 400년까지는 경전의 번역과 중국사상에 바탕을 둔 이해의 시기로 格義 불교시대라고 한다. 다음은 구마라습(鳩摩羅什, 344~413)²⁾의 한역을 계기로 하는 불교 본래의 사상연

2) 인도의 승려로 여러 곳을 편력하며 가르침을 받아 구자국에서 주로 대승교 포교활동을 벌였다. 이후 『成實論』 등 경전 번역에 힘썼으며 三論 中觀을 확립하여 三論宗의 祖師로 불리기도 한다.

구의 시기이고, 그 다음은 수·당 시대에 들어와 불교에 대한 중국인의 이해와 실천에 있어 불교 본래의 모습을 실현한 시기이다.

불교는 외래 종교로서 문화적 자긍심이 강한 중국인들 가운데는 처음부터 불교가 인륜을 무시하고孝에 어긋난다는 것, 경제적 낭비와 손실을 초래하며 초세간적 성격으로 인해 사회적 책임을 무시한다는 것 등의 이유로 당나라 말기부터 송대까지 불교를 비판하는 배불론이 존재하여 왔다. 그러나 정도신앙과 선불교가 명맥을 유지해왔으며, 도교나 토착신앙과의 접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중들의 종교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서양의 기독교 선교사들이 포교 목적으로 동양에 진출하였을 때, 중국인을 전도하기 위해 당시 중국에서 널리 읽혀진 『명심보감』을 이용하기도 하였는데,³⁾ 명대에는 『명심보감』이 邪教의 대항책으로서 민중교화의 역할을 하였다.⁴⁾ 사카이 타다오(酒井忠夫) 씨의 『중국선서의 연구(中國善書の研究)』⁵⁾와 사와다 미즈호(澤田瑞穂) 씨 편찬의 『보권의 연구(寶卷の研究)』⁶⁾에 의하면 佛者인 羅淸에 의해서 作製된 無爲教 五部六冊의 탄세무위권, 파사현증 약시권상, 정신제의무수증 자재보권, 외외부동태산 심근결과보권(嘆世無爲卷,

3) 성해준, 「『명심보감』 스페인어 번역의 정신문화적인 의의」(『동북아문화연구』 9집, 동북아시아 문화학회, 2005년) p.375 참조.

4) 酒井忠夫, 『中國善書の研究』, 弘文堂, 1960年版, 國書刊行會, 1977年 重刊, p.437에 의하면 보권(寶卷)은 『명심보감』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 p.451에 '라조(羅祖)의 학문은 명대의 민중적 학문 계열의 (中略)정도종의 민중불교와 관계가 깊은 송의 왕일휴(王日休)의 용서정토문(龍舒淨土文), 원의 보도산(普度山, 蓮宋)보감(寶鑑), 명나라 초기 대우(大佑)의 정토지귀집(淨土指歸集) 등을 인용하고 그 위에 『자심공덕록(慈心功德錄)』·『명심보감』 등 권선서에 가까운 교계서(敎戒書)도 참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명나라 말기에는 불자(佛者)「라조(羅祖)」편의 보권류(寶卷類) 등에도 『명심보감』이 인용되었다. 보권(寶卷)은 사교(邪教)의 대표로 된 백련교(白蓮教) 등의 종교결사에 의해서 이용된 것이 많았다. 또 보권(寶卷)은 하층 민중사회나 이단적 사회 계층 사이에서 행해져 종종 민중의 사회운동에 대해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5) 酒井忠夫, 『中國善書の研究』(弘文堂, 1960年) p.440.

6) 澤田瑞穂 編, 『寶卷の研究』 p.325.

破邪顯證鑰匙卷上, 正信除疑無修證自在寶卷, 巍々不動泰山深根結果寶卷)의 四部四冊 중의 인용서적 가운데도 『명심보감』이 언급되어 있다.⁷⁾

② 대만 陳秀慧의 「효운도사 교육정회적 개진과 영현(曉雲導師 教育情懷의 開展與 映現)」⁸⁾에 의하면 불교교육과 사회교육을 시작으로 開創性 공헌적 교육을 시행한 曉雲導師(1912~2004)의 서적 중에 『명심보감』이 포함되어 있다.⁹⁾

대만에서도 명·청대 판본을 시작으로 월남판본 등 다량의 판본이 현존하고 있는데, 현대 대만에서 일반에게 초략된 『명심보감』의 판본이 『대상감응편』과 불교의 내용을 포함해서 도교와 불교를 혼용한 내용이 불교신자들의 정신수양의 교양서로 유통되고 있다.¹⁰⁾ 대만 판본 『명심보감』 내용의 분량은 원본 「청주본」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분량이지만 『명심보감』의 권선에 관한 내용과 불교관련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中華民國 68(1979)년 6월 15일에 대만 瑞成書局에서 재판된 『명심보감』 부 삼성경(附 三聖經)에 “『濟顛和尚』, 『道清和尚警世云』, 『佛經云』, 『藏經云』,” 등의 불교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7) 성해준, 「일본 『명심보감』 전파와 수용 양상에 관한 연구」(『日本文化研究』 9輯, 동아시아 일본학회, 2003년).
- 8) 陳秀慧, 「曉雲導師 教育情懷의 開展與 映現」(曉雲法師 圓寂週年紀念暨 第六屆 天台宗國際學術研討會 論文).
- 9) 在〈與詩畫的一段因緣〉中, 曉雲導師 自認爲由於宿世帶來的夙因, 讓她從小對宇宙人生哲理之探尋充滿渴仰之情. 當年在讀完卷頭上繪有插圖, 令她童稚的心靈快樂無比, 且因此對繪畫產生濃濃興趣的『唐詩』, 『千家詩』後, 接著她最賞心的功課是『四書』, 『明心寶鑑』與『孝女經』等古書. 釋曉雲『島嶼歲月』(台北: 原泉出版社, 1998年) pp.97-100.
- 10) 『明心寶鑑』附 三聖經 (中華民國 68年 6月 15日 再版, 臺灣瑞成書局發行)과 昭和九年(1934)台南蘭記書局刊本の 판본이 있다. 臺灣本の 條의 구성은 ①「爲善篇」 ②「孝行篇」 ③「齊家篇」 ④「交友篇」 ⑤「政治篇」 ⑥ 부록 「太上感應篇」과 「關聖帝君覺世眞經」으로 구성.

- ① 제전화상이 경세시에 아미타여래의 경문을 다 읽고 나니 생각이 대비심다라니에 통하였다. 오이를 심으면 도로 오이를 얻고 콩을 심으면 도로 콩을 얻는다. 경문과 주문은 본디 불보살이 중생에게 낙을 주고 괴로움을 덜어주는 일인데 원제에 걸려 신원(伸冤)하지 못하면 어떻게 구제할까? 본디 타고난 마음을 비쳐보라.¹¹⁾
- ② 자신이 지은 악과는 자신이 다시 받는다.¹²⁾
- ③ 불경을 읽는 것은 아직 착한 행실을 못했기 때문이고, 복을 일으키려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권세를 지키려고 때와 사람을 편의에 따라 인도하는 방법으로 하지 말라.¹³⁾
- ④ 도정화상의 경세에 “착한 일은 비록 하기 좋아한다 할지라도 무심하면 가까이 할 수 없고, 네가 만일 좋은 일을 할지라도 딴 사람 분까지는 할 수 없고, 경전이 산더미 같이 쌓였을지라도 그것과 인연이 없는 이는 볼 수 없고, 오역하는 효순하지 못한 자는 하늘과 땅이 용납하지 않고, 제왕의 법이 천지에 진양 할지라도 범죄가 저질러진 후면 그만두게 할 수 없고, 좋은 전답이 천만 이랑이라도 죽음이 온 후에는 쓸데없고, 영전에 바치는 음식물이 좋을지라도 일어나서는 먹을 수 없고, 돈과 재물이 벽을 넘도록 쌓였을지라도 임종에 다다라서는 마땅히 할 수 없고, 운명이 서로 돕지 않을지라도 물리쳐 강하면 할 수 없고, 어린 자손이 집에 가득할지라도 죽음이 오면 바꿀 수 없다하였다.¹⁴⁾
- ⑤ 불경에 말했다.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하여 생기는 법이지만, 꿈과 환상과 물거품과 그림자와 이슬과도 같으며, 또한 번개와도 같으니 마땅히 그와 같이 관찰하라.¹⁵⁾
- ⑥ 대장경에 말하기를 사람이 갑작스럽게 꺾이는 것을 돕는 일에는 한 마디 말을 적절하게 잘 쓸 것이다. 위로 돌아간 조상을 살피어서 아래로 자손

11) 「省心篇」114조. “濟顛和尚, 警世詩, 看盡彌陀經, 念徹大悲呪, 種瓜還得瓜, 種豆還得豆, 經呪本慈悲, 冤結如何收. 照見本來心.”

12) 「省心篇」115조. “自作還自受.”

13) 「省心篇」113조. “看經未爲善, 作福未爲願. 莫若當權時與人, 行方便.”

14) 「省心篇」244조. “道清和尚警世云, 善事雖好做, 無心近不得. 倘若做好事, 別人分不得, 經典積如山, 無緣看不得, 忤逆不孝順, 天地容不得, 王法鎮乾坤, 犯了休不得, 良田千萬頃, 死來用不得, 靈前好供養, 起來吃不得, 錢財繞壁堆, 臨死帶不得, 命運不相助, 却也強不得, 兒孫雖滿堂, 死來替不得.”

15) 「省心篇」190조. “佛經云, 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 如露亦如電, 應作如是觀.”

들을 감싸 보호할 것이다.¹⁶⁾

- ⑦ 남의 집의 가난을 비웃지 말라. 부자와 가난은 돌고 돌아 쉬지 않는 것이 공평한 도리다. 남의 늙은 것을 비웃지 말라. 마침내는 모름지기 나에게도 늙음이 돌아온다.¹⁷⁾

대만에서 초략된 『명심보감』의 불교관련 인용 내용의 요지를 정리해 보면 이하와 같다.

제전화상이 경세시에 아미타여래의 경문에 “오이를 심으면 도로 오이를 얻고 콩을 심으면 도로 콩을 얻는다. 본디 타고난 마음을 비쳐보니 원죄를 짓는 자는 딴 사람한테 도로 받는다. 오역하거나 효순하지 못한 자는 하늘과 땅이 용납하지 않고 제왕의 법이 천지에 진앙할지라도 범죄가 저질러진 후면 그만두게 할 수 없다.”며 인과응보 자업자득을 논하고 있다. 또 도칭화상의 경세에 “착한 일은 비록 하기 좋아한다 할지라도 무심하면 가까이 할 수 없고, 네가 만일 좋은 일을 할지라도 딴 사람 분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경전이 산더미 같이 쌓였을지라도 그것과 인연이 없는 이는 볼 수 없다. 좋은 전답이 천만 이랑이라도 죽음이 온 후에는 쓸데없고, 영전에 바치는 음식물이 좋을지라도 일어나서는 먹을 수 없다. 돈과 재물이 벽을 넘도록 쌓였을지라도 임종에 이르러서는 마땅히 할 수 없고, 어린 자손이 집에 가득할지라도 죽음이 오면 바꿀 수 없다고 하였다.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하여 생기는 법이지만 꿈과 환상과 물거품과 그림자와 이슬과도 같으며 또한 번개와도 같으니 마땅히 그와 같이 관찰하라. 부자와 가난은 돌고 돌아 쉬지 않는 것이 공평한 도리이니 남의 집의 가난을 비웃지 말라. 남의 늙은 것을 비웃지 말라. 마침내는 모름지기 나에게도 늙음이 돌아온다”며 인연과 운명의 분수를 논하

16) 「言語篇」 13조. “藏經云, 人於倉卒. 顛沛之濟, 善用一言, 上資祖考, 下贖兒孫.”

17) 「省心篇」 225조. “莫笑他家貧 笑他家貧, 輪廻事公道. 莫笑他人老. 終須還到我.” 그 외에도 “要如前世因, 今生受者是, 要如來世界, 今生作者是.”가 있다.

고 있다.

즉 뿌린 대로 거두어들인다는 말처럼 자신이 한 선악의 행위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한 과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세상의 모든 이치에는 ‘분’과 ‘운’이라는 것이 있으니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지 말고, 도리와 인연의 자연 순리에 따라 항상 겸손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시기와 때에 맞게 행동하여야 한다. 즉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유지하면서 자연에 순응하며 초연한 禪과 善을 다할 것을 논하고 있다고 하겠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중국에서는 명나라 말기에 佛者 「羅祖」 편집의 寶卷類 등에도 『명심보감』이 인용되었다. 『명심보감』이 인격함양과 종교적 관련으로는 邪敎의 대항책의 教化서로 인용되면서 현재까지 활용되고 있다. 『명심보감』이 일반에게 활용된 것을 시작으로 佛者 羅淸, 曉雲導師, 대만 불교 연구회의 『명심보감』 付에서 『명심보감』 내용을 인용 혹은 『명심보감』 이름을 언급하면서 수용되어 불자들에게도 『명심보감』을 지적 영역을 넓히는 정신수양과 인격함양의 교양서적으로 널리 수용되었다.

Ⅲ. 일본 불자와 『명심보감』

일본 불교는 한국과 베트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중국 불교의 테두리 안에서 전개되었다. 기원전 5세기경, 인도에서 성립한 불교가 중앙아시아를 거쳐 1세기경 중국에 전해져, 4세기에는 고구려와 백제에, 6세기 초에는 신라에 전해졌다. 일본에 불교가 수용된 것은 고대국가의 확립과 함께 6세기 말에 백제로부터 전래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이다. 공식적으로는 538년, 백제 聖王 때 道藏이 불상과 경전을 가지고 일본에 건너가 成實宗의 개조가 된 때부터 시작되었다.¹⁸⁾ 공식기록 외에 그 이전에 이미 백제로부터

건너간 이민들에 의해 불교가 널리 신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백제는 일본과의 접촉이 빈번하여 觀勒(602년)은 曆法·천문·지리·術數 등에 관한 서적을 일본에 전하였고, 惠聰(595년)·道琳·曇慧·慧彌 등 많은 고승이 일본에 건너가 불교문화에 큰 공헌을 하였다.

595년에는 고구려에서 승려 慧慈가 일본에 건너가 일본 황자에게 불교를 가르쳤고, 610년에는 고구려의 曇徵이 건너갔다. 당시의 담징은 불교뿐만 아니라 유교에도 통달한 고승으로 물감, 종이, 먹 등의 제조 기술도 가지고 있었다. 물레방아도 담징에 의해 일본에 소개되었다고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다. 당시 일본 조정에는 새로운 종교인 불교를 지지하는 파와 반대하는 파의 대립이 있었으나 우여곡절 끝에 왕실과 귀족들 간에 수용되었다. 결국에는 587년의 왕위계승 전쟁에서 그들의 경쟁자들에게 승리를 거둔 후에 스이코 천황(推古天皇)의 섭정이었던 쇼토쿠 태자(聖德太子, 594년)가 三寶興隆의 칙서를 내리고 17개조 헌법을 제정하여 일본 불교의 초석을 놓았다.¹⁹⁾ 불교의 보급은 발달된 대륙문화의 수입을 뜻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일본 불교의 지식층은 대부분 고구려와 백제로부터 건너간 한국 승려들이었다. 그들 가운데는 혜충·혜자와 같이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된 사람도 있었다. 이들 한국 승려들과 중국에 유학한 일본 승려들에 의해 7세기 일본에는 「三論」²⁰⁾·「成實論」²¹⁾·「俱舍論」²²⁾의 연구를 주로 하는 학파들이 세워졌고, 중국의 법상

18) 일본에 불교가 전래된 것을 일본 최고의 역사서 『니혼쇼키(日本書記)』에 의하면 긴메이(欽明)천황 13년(서기 552년)이다.

19) 쇼토쿠 태자는 불교에 의해 씨족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를 형성하고자 했던 것이다.

20) 삼론종의 주요 경전 세 가지로 『중관론』 『십이문론』 『백론』을 말한다.

21) 인도의 불교학자 하리발마(250~350?)의 저술로 구마라습(鳩摩羅什)에 의해 411~412년에 번역되었다. 산스크리트 원전은 전해지지 않고 漢譯本만 전해진다. 내용은 發聚·苦諦聚·集諦聚·滅諦聚·道諦聚의 5취 202품으로 분류된다.

22) 소승불교의 기초적 論部의 하나로 중요시되는 것으로 5세기경에 인도의 世親菩薩이 지은 佛典 30권으로 중국의 당나라 玄奘법사가 漢譯하였다.

종도 들어와서 강력한 교단을 형성하게 되었다.

나라(奈良)시대, 헤이안(平安)시대, 가마쿠라(鎌倉)시대·무로마치(室町)시대, 에도(江戸)시대를 거쳐 불교가 수용되어 오다 메이지시대(明治時代, 1868~1912)에 들어와 국수주의가 대두하면서, 神道와 불교를 분리시키고 불교를 배격하는 운동이 전개됨에 따라 불교는 국교적 위치를 상실하고 침체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한편으로 서유럽의 근대적 불교 연구 방법이 도입되어 산스크리트·팔리어·티베트어 불전에 대한 연구와 불교사의 연구가 크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일본 불교는 전반적으로 종파적 성격이 매우 강하고 종파의 開祖에 대한 숭배가 성하며 계율준수의 전통이 사라져 메이지 정부의 명에 따라 승려들은 대부분 결혼을 하고 사찰들도 대다수 대를 이어 세습체제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다음으로 일본 불자들과 『명심보감』 관련의 특징으로 일본 무로마치(室町)시대의 五山 승려들이 당시 『명심보감』 간행 장소인 중국 남방에 직접 빈번한 왕래를 한 사실을 들 수 있다.²³⁾ 먼저, 일본 무로마치(室町)시대 오산 승려와의 관련으로 도요 에이초(東陽英朝, 1428~1550)²⁴⁾의 『젠린쿠슈(禪林句集)』에 『명심보감』을 인용하고 있다. ① 『젠린쿠슈 훈해서 인용서 일람(禪林句集) 訓解書 引用書一覽』에 『명심보감』의 서적명이 기록되어 있고, 본문에도 많은 부분에서 『명심보감』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²⁵⁾ 그 인용 내용 면에서는 스스로 언행을 조심하고 삼가하는 생활을 하며 타인을 비방하거나

23) 성해준, 「일본『명심보감』전파와 수용 양상에 관한 연구」(『日本文化研究』9輯, 동아시아 일본학회, 2003년)를 참조하였다.

24) 도요 에이초(東陽英朝)는 미노국 카모군(美濃國賀茂郡)의 호족 도키씨(土岐氏)의 15대 모치요리(持頼)의 자식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幼兒 五歲경, 上京하여 天龍寺派의 弘源寺의 開祖玉岫英種에 出家했다.

25) 『禪林句集』은 무로마치(室町)시대의 임제종 묘신지파(臨濟宗 妙心寺派)의 승려인 美濃國(지금의 기후현(岐阜縣)) 가모군(賀茂郡)의 도키 모치요리(土岐持頼)의 아들, 도요 에이초(東陽英朝, 1428~1504)가 편찬한 것이다.

해를 입히지 않으며, 덕을 쌓음으로 인해 불시에 닥칠 수 있는禍를 면할 수 있다고 논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무로마치 시대 사상의 주류였던 禪佛敎가 반영된 것으로 『명심보감』의 유교사상을 중심으로 한 「天」의 관념이나 「治政論」에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고 있다. 자기 스스로 도리에 따라 말과 행동을 하면 부끄러움과 욕됨이 없고(心不負人, 面無慚色), 또 부당한 벌을 받을 필요도 없다(日月雖有盛明, 不照覆盆之下. 剛刀雖利, 不斬無罪).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 조심하고 삼가는 생활을 중시하고 있다(賊不入愼家之門). 원래 『첸린쿠슈(禪林句集)』에서는 사람을 비방하지 않고, 해를 입히지 않으며 자신의 언행을 삼가면서 덕을 쌓음으로 인해 자신에게 불시에 닥칠 수 있는 재앙을 예방할 수 있다고 논하고 있다. 인간 행위에 대한 그에 상응하는 보답의 상벌응보 관념보다는 인간 본성에 호소하고 마음의 수양으로서의 온화함과 인간의 심신의 평안을 어필하고 있다.²⁶⁾ 禪林의 初學人과 茶道界·書道界를 대상으로 주로 禪者의 정신 수양과 교양 함양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²⁷⁾

또 1593년 승려 출신의 하비안이 편찬한 ② 『天草版金句集』에도 『명심보감』으로부터의 인용이 보인다. 『아마쿠사한 긴쿠슈(天草版金句集)』(1593년 편찬)의 편찬자 하비안은 臨濟宗 오산과 관계가 깊은 자로 일본 耶蘇敎에 입회하기 전에는 「禪僧」의 승려이기도 하였다.²⁸⁾ 『긴쿠슈(金句集)』는 당시

26) 성해준, 「일본 중세 사상사에 있어서 『첸린쿠슈(禪林句集)』와 『天草版金句集(아마쿠사한 긴쿠슈)』」(『日本文化研究』 7輯, 동아시아 일본학회, 2002년), p.200.

27) 柴山全慶 編輯, 『訓注 禪林句集』, 書林其文堂, 1974年, p.2 및 1688年 「洛橋巽隅山 阜巳十子」의 『禪林集句』의 「跋文」 參照. 柴山全慶에 의하면, 元祿 5年版 『句雙葛藤書』, 元祿 6年版 『假名付禪林句集』을 비롯하여 山本俊岳 『和訓略解禪林句集』 中川涉庵 『禪語字彙』 柴山全慶 『訓注 禪林句集』, 1972年, 其中堂, p.2. 「宗門初學의 여러 사람에게 언급할 뿐만 아니라 특히 茶道界 書道界를 비롯하여 (中略)말할 필요도 없이 禪은 體驗을 바탕으로 不立文字를 主張하는 것이다. 文字體驗으로부터 流出한 餘瀝이라고 말할 수 있다.

28) 『天草版金句集』은 종래의 여러 가지 『金句集』이나 『論語』 등으로부터 금언을 모으고 있지만 『명심보감』과 유사한 부분은 상당수 있다.

의 선교사들이 일본인을 전도·교화하기 위한 지침서로 「善道」를 가르치기 위한 일본어(한문)를 비롯하여 일본의 문학·역사·격언 등을 가르치기 위한 자료이기도 하였다.²⁹⁾

『아마쿠사한 긴쿠슈(天草版金句集)』을 보면 「天」은 인간의 生死·富貴를 지배하는 절대적인 힘을 배경으로 「仁·德」의 도리가 논해져, 인간은 「天」의 뜻을 저버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罪天獲時禱所). 또 『天草版金句集』에서는 인간이 「善」의 수양을 쌓는 것에 의해 천(불교의 극락세계)에 갈 수 있고 악을 행하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인간의 선악 행위에 대한 결과로 「천」, 「지옥」과 연결 지어 응보와 상벌에 따른 권선을 논하고(修善生天, 造惡地獄. 心) 있다.³⁰⁾

다음으로 에도시대 전기의 승려이자 사상가인 아사이 료이(淺井了意, 1612~1691)의 ③ 『우키요 모노가타리(浮世物語)』·『간넌키(堪忍記)』 등 에도 『명심보감』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³¹⁾ 료이의 불교관련 서적 『浮世物語』에서 『명심보감』의 천의 사상의 내용이 주로 인용되었다. 인용된 천은 선한 자에게 복을 주고 악한 자에게 재앙을 내리는 천의 밝은 섭리를 설명하며 인간행위의 ‘악’에 대한 강력한 제재로서의 천의 노여움·벌을 강조하여 인간의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행을 강요하고 있다.

29) 『金句集』의 “金句”라고 하는 이름은 무로마치 시대의 禪林에 나오는 것으로 불교인의 命名이나 採擇에 의해 불려진 불교와 관계된 문자로 이후 金口는 일본의 오래된 譯經과 이미 萬葉集의 題詞에도 사용되어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吉田澄夫, 『天草版金句集の研究』(東洋文庫, 1938年, p.5). 성해준, 「일본 중세 사상사에 있어서 『젠린쿠슈(禪林句集)』와 『天草版金句集(아마쿠사한 긴쿠슈)』」(『日本文化研究』 7輯, 동아시아 일본학회, 2002년).

30) 성해준, 「일본 중세 사상사에 있어서 『젠린쿠슈(禪林句集)』와 『天草版金句集(아마쿠사한 긴쿠슈)』」(『日本文化研究』 7輯, 동아시아 일본학회, 2002년).

31) 료이는 에도시대 하급무사로 셋츠코쿠 미시마에무라 히가시 혼간지(攝津國 三島江村 東本願寺)교단의 사찰 심부름(寺侍)을 시작으로 불교에 입문하여 만년에는 眞宗의 전과를 목적으로 한 수많은 불교 서적을 저술하였다.

또 물질적 가치 추구보다는 정신적 가치 추구를 중시하며 ‘천’의 권능 아래 인간은 각각의 신분상응의 생활에 만족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³²⁾

료이(了意) 저작의 『간닌키(堪忍記)』³³⁾의 勸善사상에서도 천의 강한 권선징악, 인과응보에 덧붙여 인간 이외의 홍수에서 물에 빠진 어린 새와 개미를 구하고 선의 응보를 받은 예를 논하며 조류나 곤충류에 이르기까지 선을 행하도록 논하고 있다. 악자를 돕는 선에는 선행을 한 후에 果報를 받아 부자가 된 실례들이 있다. 이것을 『명심보감』의 천의 관념에 근거한 응보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보답의 예로 불교의 자비 사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상, 일본 불자들의 『명심보감』 인용의 실례에서 『禪林句集』과 『金句集』이 불자의 교양함양을 그 출판 목적이라고 한다면, 아사이 료이(淺井了意)의 『우키요 모노가타리(浮世物語)』는 당시 체제 이데올로기가 목적이다.³⁴⁾ 일본의 불자들에게 『명심보감』은 이데올로기와 관련시킨 天의 관념을 논한 측면도 있지만 『명심보감』의 권선사상이 교양과 권선의 측면에서 혹은 선행과 자비의 측면에서 일본의 불자들은 필요에 따라 『명심보감』을 각각 특색 있게 인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32) 康節邵先生言へる事あり。天は聴けども寂かにして音無し。蒼々いづれの處にか尋ねん。高きにあらず遠きにあらず。すべて只人の心にあり。人の心一念を生ずれば、天地悉く皆知る。善惡にもし報なくは乾坤必ず私あらんと言へり。罪を天に獲れば禱るに所無し。(「天道を恐るべき事」)

33) 『堪忍記』는 堪忍을 기조로 하여 유교·불교·도교가 융합한 도덕에 근거하여 古來의 고전·日本의 逸話·巷說·설화 등을 채취·편집하면서 「권선징악·인과응보」를 논하고 있다.

34) 성해준, 「淺井了意 작 『浮世物語』의 사상」(『일본문화연구』 11집, 동아시아일본학회, 2004년).

IV. 서산대사와 『명심보감』

서산대사는 21세 때 지리산을 지나는 도중 쌍계사에서 崇仁 長老의 설법이 계기가 되어 불교에 입문하게 되었다.³⁵⁾ 거기서 다수의 글을 정독한 후에 영규 대사 밑에서 3년간 수행하다 삭발하고 승인 장로를 교육사로 경성 일선스님을 수계사로 석회법사 육공장로 각원상좌를 등계사로 부용 영규스님을 전법사로 득도하였다.³⁶⁾

그는 금강산과 두류산에서 지내면서 45세 때, 백화암에서 『禪家龜鑑』의 서문을 썼다. 서산대사는 유·불·도 삼교합일사상을 중시하며 삼교의 화합과 동일성을 주장하며 유·불·도 삼교를 두루 섭렵하였는데, 대사가 논하는 삼교에서는 모두 道를 말하는데 도란 철저히 깨달으면 유가니 불가니 도가니 하는 것은 모두 헛된 이름(虛名)일 뿐인 것이라며³⁷⁾ 삼교 모두 허상에만 쫓겨 그 근본을 잃지 말 것을 당부하며 유·불·도 삼교회통사상의 원리를 드러내고 있다. 이 중에서도 대사의 유불도의 사고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으로 『三家龜鑑』이 있다.³⁸⁾

35) 지리산의 華嚴洞·七佛洞 등을 구경하면서 여러 사찰에 기거하던 중, 靈觀大師의 설법을 듣고 佛法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그곳에서 『傳燈』·『拈頌』·『화엄경』·『圓覺經』·『楞嚴經』·『維摩經』·『반야경』·『법화경』 등의 깊은 교리를 탐구하던 중, 깨달은 바 있어 스스로 시를 짓고 삭발한 다음 崇仁長老를 스승으로 모시고 출가하였다.

36) 五臺山·金剛山 등 명산의 여러 사찰에 수행하여 학목대사에게서 인가를 받은 후, 지리산에서 보내다가 관동명산을 편답하다 30세에 보우스님이 문정왕후의 힘을 빌어 승과제도를 부활시켜 明宗이 僧科를 행하였을 때, 주위의 권고로 이에 응시하여 최고 득점으로 급제하였다. 敎宗判事都大師를 거쳐 禪宗判事를 역임하고 36세 때 선종과 교종 모두를 총괄하는 判事로서 불교 증흥에 큰 공헌을 하였다. 서산대사 이후, 한국불교는 결정적으로 禪을 주로하고 敎를 중으로 하는 불교, 혹은 교로 시작하여 선으로 들어가는 捨敎入禪의인 불교가 되었다.

37) 休靜述, 『三家龜鑑(異本)』(東國大學校 韓國佛教全書 編纂委員會編, 『韓國佛教全書 第7冊』, 朝鮮佛教中央敎務院刊, 1994년), p.634b(부경대 도서관 220.82-1-7).

38) 申正午, 「休靜 “一物觀” について」 『東方宗教』 64号, 1984年.
吉田紹欽, 「李朝仏教における西山大師休靜をめぐる」 『印度哲學仏教學』 1号, 1986年.

① 『三家龜鑑』은 삼교의 사상을 표현한 『儒家龜鑑』, 『道家龜鑑』, 『禪家龜鑑』의 유교·도교·불교 삼교의 가르침에서 귀감이 될 만한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으로 대사 43세 되던 해인 1562년, 지리산 能仁庵에서 간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삼가귀감』에서 당시의 승유억불정책 속에서 유학자들에게 중시되어 유학서로 개조된 뒤 정착한 『명심보감』을 인용한 것이다.

대사의 사상은 대혜종과나 보조 지눌의 간화선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특히 『삼가귀감』³⁹⁾은 禪宗에 대한 입문서로 다양한 불교 이론을 간결하게 서술한 명쾌한 서적으로 서명 상에 삼가가 명시된 현존 서적으로는 유일한 것이다. 고려 말 이전까지 삼교의 대립관계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려 말 선초부터 급격하게 일어난 배불론으로 불교가 쇠퇴 기미에 있었다. 그러한 시기에 서산대사는 불교계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선교일치의 내부 성찰과 삼교융합의 외부 수용을 통하여 삼교를 포섭하고 융합하려는 노력의 구체적인 산물로 『삼가귀감』을 편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가귀감』은 서산대사가 불교 경전 및 중국과 한국 선사의 여러 서적 가운데 중요한 내용만을 채록한 160장이 인용되어 있다. 또 대사는 이 책을 편찬하는 데 50여종의 불경과 역대 祖師들의 어록 가운데 요긴한 것만을 가려 뽑았는데, 이중에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에 속하는 책들이 비교적 많은 인용회수를 보이고 있어 이 책은 호불서라는 본래의 성격 이외에도 선종의 학술서로서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⁴⁰⁾ 특히, 『삼가귀감』은 『명심보감』과 記述의 체제와 문장구사 형식면에서 동일한 점이 많은데, 이 『삼가귀감』과 『명심보감』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이미 신정오 스님의 『명심보감』 저작의 서산대

39) 서산대사 저술의 불교 개론서로 13대 明宗 19(1564)년 간행되어 14대 宣祖 12(1579)년 金華道人이 한글로 번역하여 현재까지 불도 수행의 표본이 되고 있는 서적이다. 1962년 曹溪宗 禪學院에서 쉬운 현대어로 풀이하여 활자본으로 간행하였다.

40) 宋日基, 『三家龜鑑』編成考, 『서지학연구』9, 서지학회, 1993년 p.1, p.40.

사설의 연구가 있다. 신정오 스님은 “서산대사 저작 중 『명심보감』과 같은 형식은 『삼가귀감』만이 아니고 『禪教釋』, 『禪教訣』, 『淸虛集』, 『說禪儀』, 『雲水壇歌詞』, 『三老行蹟』, 『心法要抄』, 『禪家金屑錄』 등에서 『명심보감』과 같이 단문문장 형식을 취하고 편술의 體裁, 문장의 형식, 논리의 전개 등이 너무나도 닮은 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⁴¹⁾ 그러나 필자가 『삼가귀감』과 『명심보감』과의 관계 외에 『삼가귀감』과 유사한 서산대사의 저술인 원본 『禪教釋』, 『禪教訣』, 『雲水壇』, 『說禪錄』, 『淸虛堂集』, 『碧松行略』, 『心法要』 등의 서적과 『명심보감』을 조사하였지만, 『삼가귀감』 외의 서산대사의 다른 저서에서는 『명심보감』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인용은 보이지 않았다.⁴²⁾

『삼가귀감』(『儒家龜鑑』·『道家龜鑑』·『禪家龜鑑』)의 『명심보감』 인용사항을 보면 『유가귀감』이 『명심보감』의 내용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다. 『삼가귀감』의 『명심보감』 내용의 인용관련은 신정오 스님의 논문을 참조하면서 『삼가귀감』의 원본을 새로 조사하여 필자가 인용개소를 일부 추가하여 총 18개소의 인용 각 부분에 『명심보감』으로부터의 편조를 기입하여 한글 해석을 붙였다

아래는 『삼가귀감』과 『명심보감』의 관련 내용을 비교하였다. 아울러 『삼가귀감』의 『명심보감』의 본문 내용 인용관련 조사에 사용된 관본은 부경대학교 소장 休靜述, 『三家龜鑑(異本)』(東國大學校 韓國佛教全書 編纂委員會編, 『韓國佛教全書 第7冊』, 朝鮮佛教中央教務院 刊, 1994년, p.7-632 下)인 것을 밝혀둔다.

41) 명월사 주지사님인 法印 申正午 스님은 「『明心寶鑑』의 編者에 關して—秋適說의 疑問」(東方學會 編 『東方學』 第70輯, 1985년 7월), 「『明心寶鑑』의 編者에 對한 小考」(『韓國佛敎學』 제6輯, 1981년)와 「西山大師의 『禪家龜鑑』 연구」(천안 新紀元社, 1983년)가 있다.

42) 일본의 에도시대 아시아 료이, 카이바라 에키겐 등의 지식인들이 『명심보감』의 내용을 자신의 여러 서적에 유사한 내용을 반복해서 인용한 것과는 다른 형태다.

② 『儒家龜鑑』에서는 주로 타인의 허물을 말하지 말고, 언행을 조심하며 시비에 連類되지 말고, 착한 것을 보고 따라하고 분수에 맞는 생활과 지족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논하고, 주옥보다 현명한 친구와 스승을 택하라며 지혜와 희망을 주는 인연을 소중히 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하 『유가귀감』과 『명심보감』을 대비적으로 살펴보자. 내용이 같으므로 번역문은 하나만 제시하고, 그 아래 원문을 비교하였다. ①은 『삼가귀감』의 내용이고, ②는 『명심보감』의 내용이다.

타인의 허물을 듣거든 부모의 이름을 듣는 것같이 하여 귀로는 들을 수 있을 지언정 입으로는 말하지 말아라 하였다.

- ① 聞人過失，如聞父母之名，耳可聞，而口不可言。
- ② 馬援曰聞人過失，如聞父母之名，耳可得聞，口不可言也。(正己篇 14條)

시비가 종일 있을지라도 듣지 않으면 저절로 없어진다. 오는 말이 시비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시비하는 사람이다.

- ① 是非終日有，不聽自然無，來說是悲者，便是是非人。
- ② 是非終日有，不聽自然無，來說是悲者，便是是非人者。(省心篇 65, 66條)

만약 한쪽의 말만 듣는다면 문득 서로 떨어짐을 볼 것이다.

- ① 若聽一面說，便見相離。
- ② 若聽一面說，便見相離別。(省心篇 47條)

스스로 지은 악은 도로 스스로 받는다. 성리서에서 말하기를 남과 대할 때는 중요한 점은 자기가 하고 싶지 아니한 일이거든 남에게 베풀지 말고, 자기가 행하여 소득이 없거든 그것을 자기 몸을 돌아보고 구하라 하였다.

- ① 君子行有不得，皆反諸己，而無責人之心，心常洒落，常人讒不得於天，即怨天，讒不合於人，既尤人，心常不寧，忿懣勞擾。
- ② 自作還自受，性理書云，接物之要，己所不欲勿施於人，行有不得反求諸己。(省心篇 115, 254條)

남의 착한 것을 보거든 나의 착한 것을 찾고, 남의 악한 것을 보거든 나의 악한 것을 찾아 따르고 고치어 그것을 함께 하면 도움이 되는 바가 있다.

- ① 見人善，尋己善，見人惡，尋己惡，從也，改也，俱僞我師。
- ② 性理書云，見人之善而尋己之善，見人之惡，而尋己之惡，如此方是有益。（正己篇 1條）

족함을 아는 사람은 가난하고 신분이 낮아도 또한 즐거울 것이고, 족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돈이 많고 신분이 귀하여도 또한 걱정한다. 안정된 것을 알면 번영하고, 족함을 알면 부유해진다.

- ① 知足者，貧賤亦樂，不知足者，富貴亦憂，知安則榮，知足則富。43)
- ② 景行錄云，知足可樂，務貧可憂。知足者，貧賤亦樂，不知足者，富貴亦憂，知足常足終身不辱，知止常止足終身無恥。（安分篇 2條）

사람은 백 살까지 사는 사람이 없으나 공연히 천년의 계획을 세운다.

- ① 人無百歲人，枉作千年計。
- ② 人無百歲人，枉作千年計。（省心篇 54條）

큰 집 천 칸이 있을지라도 밤에 눕는 데는 여덟 자면 될 것이고, 좋은 밭만 이랑이 있을지라도 하루 먹는 데는 두 되면 된다.

- ① 大廈千間，夜臥八尺，良田萬頃，日食二升。
- ② 大廈千間，夜臥八尺，良田萬頃，日食二升。（省心篇 199條）

사람들은 모두 주옥을 사랑하지만, 나는 현명한 스승과 친구를 사랑한다.

- ① 人皆愛珠玉，我愛賢師友。
- ② 人皆愛珠玉，我愛子孫賢。（訓子篇 16條）

황금 만 냥이 귀한 것이 아니고, 덕 있는 사람의 한 마디의 말이 천금보다 낫다.

- ① 黃金萬兩未爲貴，得人一語勝千金。
- ② 黃金千兩未爲貴，得人一語勝千金。（省心篇 14條）

43) 앞의 책, p.7-633 上.

유명한 일을 돌에 새겨 둘 필요가 없고, 길가는 사람의 입이 비석이다.

- ① 有名不用鐫頑石，路上行人口是碑，平生不作皺眉事，世上應無切齒人.
- ② 擊壤詩云，平生不作皺眉事，世上應無切齒人. 大名豈枉鐫頑石，路上行人口勝碑. (省心篇 70條)

마음속으로 남에게 은혜를 지지 않으면 얼굴에 부끄러운 빛이 없을 것이다.

- ① 心不負人情，面無慙色.
- ② 心不負人情，面無慙色. (存心篇 49條)

모든 일에 인정을 두면 훗날에 서로 좋은 얼굴로 볼 수가 있다.

- ① 凡事留人情，後來好相見.
- ② 凡事留人情，後來好相見. (戒性篇 14條)

만약 남이 나를 소중히 여기기를 요망하거든 나무라지 말고, 내가 남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나음이 없다.

- ① 若要人重我，無過我重人.
- ② 若要人重我，無過我重人. (遵禮篇 15條)

가난하면 시끄러운 시장에 살아도 서로 아는 사람이 없고, 부자면 깊은 산중에 살아도 먼 친척이 찾아온다.

- ① 貧居鬧市無相識，富住深山有遠親.
- ② 貧居鬧市無相識，富住深山有遠親. (省心篇 100條)

“타인의 허물은 부모 이름 듣는 것처럼 들어도 말하지 말라, 시비는 두면 저절로 없어진다. 한 쪽 말만 듣지 말고, 남의 착한 것은 보고 배우고 남의 악한 것을 보거든 자신의 악을 찾아 고쳐라. 남을 소중하게 하면 나도 소중한 대접을 받는다. 죽함을 알면 즐거운 것이니 과욕하지 말고, 주옥보다는 덕이 있는 사람의 언행과 현명한 친구와 스승을 소중히 하라.”와 같이 『儒家龜鑑』에서는 유가의 仁義禮智信의 논리를 의식한 권선은 아니지만 재물에 대해 집착하지 말고 과욕은 삼가며 타인의 허물과 약점을 논하지 말고 이웃

과 벗 스승의 덕과 현명한 행실을 소중히 하라는 생활철학을 역설하고 있다.

③ 『道家龜鑑』에서는 인간의 선악의 행동의 결과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악한 생각까지 천과 신은 이미 감지하고 있으니 남을 헐뜯고 필요 없는 비방을 하는 私語를 조심하고 일거수일투족의 행동을 조심하여야 하는 것을 논하고 있다.

인간이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도 하늘과 땅은 빠짐없이 모두 안다.

- ① 人心生一念天地悉皆知, 44)
- ② 人心生一念天地悉皆知. (天命篇 6條)

사람들 사이의 사사로운 말이라도 하늘이 듣는 것은 천둥소리와 같고 어두운 방에서 마음을 속일지라도 신의 눈은 번개와 같다.

- ① 人間私語, 天聞若雷, 暗室虧心, 神目如電.
- ② 玄帝垂訓曰, 人間私語, 天聞若雷, 暗室欺心, 神目如電. (天命篇 7條)

밤 말은 쥐가 듣고 낮말은 새가 듣는다고 한 것처럼 사악한 생각이나 남에게 해가 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논하고 있다. 신은 인간의 선악행위의 결과에 따른 응보를 내리는 것은 물론,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악한 마음까지 감지하니 혼자 있을 때라도 매사에 선을 생각하고 선을 행할 것이 논하여져 있다.

④ 『禪家龜鑑』은 착한 일은 봄 동산의 풀처럼 자라나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날마다 더하여 지고, 악한 일은 칼을 가는 숫돌과 같아서 닳는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점점 닳아가 허물어진다며 절대로 악행을 저지르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

44) 앞의 책, p.7-634 上.

동약성제수훈에 하루 착한 일을 하면 이내 행복이 닥쳐오지 않을지라도 재앙은 점점 멀어지고, 하루 악한 일을 하면 이내 재앙이 닥쳐오지 않을지라도 행복은 점점 멀어진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봄 동산의 풀과 같아서 당장 자라나는 것을 눈으로 보아 알 수는 없으나, 날마다 더해지는 바가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칼을 가는 숫돌과 같아서 당장 숫돌이 닳는 것을 눈으로 보아 알 수는 없으나, 날마다 닳는 바가 있다.

- ① 故曰，修道之人，如一塊磨刀之石，張三也來磨，李四也來磨，磨來磨去，別人刀快，而自家石漸消，研有人更嫌他人，不來我石上磨，實爲可惜。⁴⁵⁾
- ② 東岳聖帝垂訓曰，一日行善，福雖未至，禍自遠矣，一日行惡，禍雖未至，福自遠矣，行善之人，知春園之草，不見其長，日有所增，行惡之人，如磨刀之石不見其損，日有所虧。(繼善篇 42條)

조그마한 선이라도 쌓이면 큰 선이 되고 작은 악이라도 쌓이면 큰 화가 된다는 것처럼 자신이 지은 죄과는 언젠가는 스스로 받는다는 것을 논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심보감』이 중국의 불자들에게는 이데올로기 혹은 邪敎의 대항책으로 사용되었다. 또 일본 불자들에게는 이데올로기가 담긴 民衆啓蒙 서적으로 사용되었다. 반면, 한국의 서산대사는 그러한 이념에 집착하지 않고 『명심보감』 본래의 사상에 입각하여 불교인의 교양과 불교이해의 도움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인용의 요지는 다른 사람의 허물은 부모의 이름을 듣는 것으로 생각하고 들어도 못들은 체하고, 시비가 종일 있더라도 듣지 않으면 자연 없어지는 것이니, 군자나 타인의 착한 일에는 보고 배워 따르고, 타인의 악한 일에는 자신의 악한 곳을 찾아 고치라고 하면서 선행을 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또 사람이 100살까지 사는 자는 드문데 욕심을 부려 천년의 계획을 세우고, 큰

45) 앞의 책, p.7-642 下.

집이 천 칸이라도 밤에 자는 것은 삼 척 정도면 되고, 아무리 좋은 전답이 많아도 하루 먹는 것은 2홉 정도면 되는 것이니 너무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고 논하고 있다.

인간의 私語라도 天이 듣기에는 우리와 같고 암실에서의 마음도 신이 보기에는 번개와 같으니 자신과 타인을 속이지 말고 이웃을 되돌아보고 현명한 친구를 소중하게 하며(많은 사람들이 주옥을 사랑해도 나는 현명한 친구를 사랑한다. 人皆愛珠玉, 我愛賢師友), 대인관계에 있어서 자비와 사랑으로 선과 덕을 베풀어 화목한 인간관계를 유지 할 것이 강조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교우, 계선, 안분, 성심, 정기, 훈자, 계성, 준례, 천명 등의 내용에서 인용하였지만 서산대사가 『명심보감』에 포함된 불교관련 내용을 의식하면서 발췌하여 불교적 내용을 특별히 인식한 내용은 아닐지 모르지만 『명심보감』의 지족안분, 인과응보, 권선징악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윤리관을 논하면서 분수에 맞는 생활로 언행을 조심하여 언쟁과 시비에 연루되지 않는 생활 속에서 정신적 여유를 향유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삼가귀감』은 삼교의 핵심을 마음(心)으로 파악하고 불가에서도 새로운 자각과 각성으로 흠어진 법계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시대적 요청이 반영된 것이며, 또 『삼가귀감』의 편찬으로 대외적으로는 삼교 일치를 내세우며 삼교 사상 가운데서도 불교가 요제를 포함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즉, 유교와 도교를 수용하고 융합하려는 불교 우위의 입장에서 체제 역시 불교·유교·도교를 차례로 수록하고 내용은 불교 위주로 편성한 것이다. 이러한 서산대사의 노력에 대해 법인 신정오 스님은, '모든 生靈을 普濟하는 보살행을 실천한 그가 조국의 윤리도덕교화 교육을 위한 『명심보감』과 같은 수신제가의 서적을 인용한 것은 삼교관을 통해 종교간의 벽을 허물고 종교를 초월한 국민 화합과 민족정신에 입각한 것⁴⁶⁾'으로 평가하였다.

46) 法印 申正午, 『『明心寶鑑』의編者に關して—秋適說の疑問』(東方學會編 『東方學』第70

V. 맺음말

본 논문을 통해서 『명심보감』은 동아시아에 널리 전파되어 큰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불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친 서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중국에서는 『명심보감』이 불교관련 종파인 白蓮教라고 하는 邪教 대항책의 교화서로 정치적으로 활용되면서 정통적인 불자들의 서적에 『명심보감』의 내용이 인용되었다. 대만에서는 불교와 도교의 내용을 혼용하여 편집한 독자적인 판본(『明心寶鑑』附 三聖經)이 가정의 재단과 불교 신자들 사이에 유통되면서 교양과 인격함양을 위한 정신수양 서적으로 활용되었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명심보감』을 이데올로기와 관련시킨 아사이 료이(淺井了意)와 같이 天의 관념을 논한 측면도 있지만, 『젠린쿠슈(禪林句集)』나 『긴쿠슈(金句集)』처럼 『명심보감』의 권선사상이 교양과 권선의 측면에서 혹은 선행과 자비의 측면에서 활용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중국 일본의 불자들에게는 『명심보감』이 사회체제 이데올로기의 수단 혹은 불자들의 교양함양의 일환으로 출판되었는데, 이에 반해 한국의 서산대사의 『三家龜鑑』은 승려들의 교육내용으로 출판되었다. 즉 한국의 불자들에게는 정치적 이념과 관계없이 수행의 정신적 교양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왔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순옥, 「西山大師의 禪教觀에 관한 考察 -禪家龜鑑을 中心으로」, 『석림』22, 동국대학교 석림회, 1989년. p.56. p.59.
- 성해준, 「일본 중세 사상사에 있어서 『젠린쿠슈(禪林句集)』와 『天草版金句集(아마쿠사한 긴쿠슈)』」, 『日本文化研究』7輯, 동아시아 일본학회, 2002년.
- 성해준, 「淺井了意작『浮世物語』의 사상」, 『일본문화연구』 11집, 동아시아일본학회, 2004년.
- 성해준, 「『명심보감』 스페인어 번역의 정신문화적인 의의」, 『동북아문화연구』 9집, 동북아시아 문화학회, 2005년.
- 성해준, 「『明心寶鑑』과 佛敎와의 關係」, 『퇴계학과 한국문화』 45호,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9년.
- 宋日基, 「『三家龜鑑』編成考」 『서지학연구』9, 서지학회, 1993년 p.1, p.40.
- 申正午, 「休靜 “一物觀” について」 『東方宗教』 64号, 1984年.
- 申正午, 「『明心寶鑑』의 編者에 關して -秋適說의 疑問」, 東方學會 編 『東方學』 第70輯, 1985年.
- 임영호, 「愍山德淸 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 『東北亞文化研究』 16집, 2008년.
- 休靜述, 『三家龜鑑(異本)』, 東國大學校 韓國佛敎全書 編纂委員會編, 『韓國佛敎全 第7冊』, 朝鮮佛敎中央敎務院刊, 1994년. p. 634b. (부경대 도서관 220.82-1-7)
- 吉田紹欽, 「李朝佛敎における西山大師休靜をめぐって」, 『印度哲學佛敎學』 1号, 1986年.
- 柴山全慶 編輯, 『訓注 禪林句集』, 書林其文堂, 1974年. p.2
- 酒井忠夫, 『中國善書の研究』, 弘文堂, 1960年. p.440.

Abstract

The aspect of how East asia Buddhists accept Myoungsimbogam

Sung, Hae-Jun

This report is the consideration of how Myoungsimbogam was accepted in East asia Buddhist's literary work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Myoungsimbogam and Buddhism was already mentioned at the introduction of Chungjubon Myoungsimbogam.

Myoungsimbogam was spreaded to the west,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Buddhism contents depends on country or period of time. So to speak, the original text and also this report's some of contents were canceled or added.

Especially, Buddhism Writing of Korea, Japan, China and Taiwan accept many parts of Myoungsimbogam, but also there are differences in acceptance. The relationship of East aisia Myoungsimbogam and Buddhism is the important thing when we think about Myoungsimbogam was widely spreaded to lots of county and social stratum.

The result of research, In China and Japan Myoungsimbogam was published by means of ideology or promoting buddhist education, but in Korea it affected self-culturing of buddhist by both direct and indirect way.

Key Word

Myoungsimbogam, East Asia, Buddhism, seosandesa, touyou eichou, razo

▪ 논문투고일 : 2010.6.16. 심사시작일 : 2010.7.17. 심사완료일 : 2010.7.29.